

체제전환국 WTO 가입의 효과 분석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동희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 | |
|------------------------|-------------------------------|
| I. 서론 | 1.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무역 및 투자변화 |
| II.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 2.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무역 및 투자변화 |
| III. 키르기스스탄의 WTO 가입배경 | 3. 원인분석 |
| IV. WTO 가입 후 무역 및 투자변화 | V. 결론 |

초 록

1991년 소비에트의 붕괴로 인해 국제무대에 그 모습을 드러낸 국가들을 체제전환국이라고 부른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을 거쳤고, 그 이행과정은 크게 점진적 방식과 충격요법으로 나누어지며, 체제전환국들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하나의 방식을 선택했다. 이러한 체제 전환의 과정이 모든 체제전환국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 국가들은 거의 모두 WTO 가입을 추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글은 이렇게 대부분의 체제전환국들이 가입을 추진한 WTO 체제가 해당 국가의 경제에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 가입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를 특정하게 지칭할 수는 없지만, 무역과 투자 부문을 통해 WTO 가입의 효과 유무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이기에, 무역의 증감을 통한 해당국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데 가장 적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Roman Mogilevsky가 2004년의 글에서 보인, 2002년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키르기스스탄의 WTO가입의 효과에 대해 기술한 것을 보완하여, 1998년 이전의 자료와 2002년 이후의 자료를 보강을 통해, WTO 가입 후 10년이 지난 키르기스스탄에 나타난 WTO 가입효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무역과 투자에서 WTO에 가입한 1998년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일정 수준의 증가 양태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이것은 특정국가 및 자원에 대한 편중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입 이후, WTO 가입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보다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WTO가입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WTO 가입이라는 절차와 진행이라는 행정적 경험은 통해 키르기스스탄은 국제적 경제협력 및 개발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I. 서론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세계 무대에 새롭게 등장 한 15개의 국가들은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지향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경제 체제를 기존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이행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의 실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실패도 의미¹ 하듯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정치적 헤게모니의 붕괴만이 아니라, 소련경제의 실패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트 붕괴로 독립을 이룬 15개의 공화국들은 시장경제의 도입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른 체제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체제전환이 모든 공화국에서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체제전환의 속도와 범위라는 측면에서 각 공화국은 그들만의 속도와 범위를 채택했고, 나름의 체제전환을 진행시켜나갔다. 크게 점진주의와 충격요법으로 대변되는 체제전환의 유형에서 각 국이 어떠한 유형을 따라 전환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대략적인 구분은 가능하다².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충격요법을 채택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투르크메니스탄은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체제 전환을 선택했고, 실행했다.

체제 전환을 맞이한 모든 국가들의 경제 내적인, 외적인 초기 조건이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모두가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초기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국가가 채택한 전환 유형이 같은 것도 아니었다. 에너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같은 유형의 체제전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자원 빈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벨라루스가 같은 유형의 체제전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결국 CIS 각 국이 추진한 체제 전환 유형은 일괄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전환을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체제 전환 국가들은 세계 무역질서에 통합되기 위해 다양한 국제무역 및 금융기구들에 대한 가입을 추진했다. 그리고 각국은 WTO 가입을 추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체제 전환 국가들은 WTO 가입을 통해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경제 외적인 이익을 얻기를 원했다.

¹ Ouran Niazliev, "Failed Democratic Experience in Kyrgyzstan: 1990-2000,"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of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April 2004), p. 56

² Joel S. Hellman, "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 *World Politics* 50.2(1998) pp. 203-234

[표 1] 유라시아 국가들의 국제기구 가입년도^{3 4}

	ADB	WB	EBD	EBRD	IDB
아르메니아	2005	1992	2008	1992	-
벨라루스	-	1992	2008	1992	-
카자흐스탄	1994	1992	2006	1992	1995
키르기스스탄	1994	1992	-	1992	1995
러시아	-	1992	2006	1992	-
타지키스탄	1998	1993	2008	1992	1996
우즈베키스탄	1995	1992	-	1992	2003
투르크메니스탄	-	-	-	-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은행에는 1992년과 93년에 가입을 했고, 이슬람 개발 은행에 역시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4개국이 가입했다는 특징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국제적 금융기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적, 정치적인 폐쇄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체제전환국들의 WTO 가입 시기>

가입시기	동유럽국가	구 소련	기타
1995-1998	불가리아(1996), 체코(1995), 헝가리(1995), 폴란드(1995), 루마니아(1995), 슬로바키아(1995), 슬로베니아(1995),	키르기스스탄(1998)	쿠바(1995), 몽골(1997)

³ 각 기구는 다음과 같다. ADB: Asian Development Bank, WB: World Bank, EBD: Eurasian Development Bank,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DB: Islamic Development Bank

⁴ Zhanar Sagimbaeva, "Inter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in Northern and Central Eurasia: Overview of Activities in 2008," EDB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2009, 2009

1999-2001	알바니아(2000), 크로아티아(2000)	그루지아(2000), 라트비아(1999), 리투아니아(2001), 몰도바(2001), 에스토니아(1999)	중국(2001)
2002년 이후	마케도니아(2003),	아르메니아(2003), 우크라이나(2008)	베트남(2007)

자료: WTO

[표 3] CIS 국가들 중, WTO 읍저버 국가들의 WTO 가입 추진 시기>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가입 신청	93년 9월	96년 1월	96년6월	2001년5월	94년 12월	97년 6월
최초 실무자 회의	97년 6월	97년 3월	95년7월	2004년 3월	2002년 7월	2002년 6월

자료: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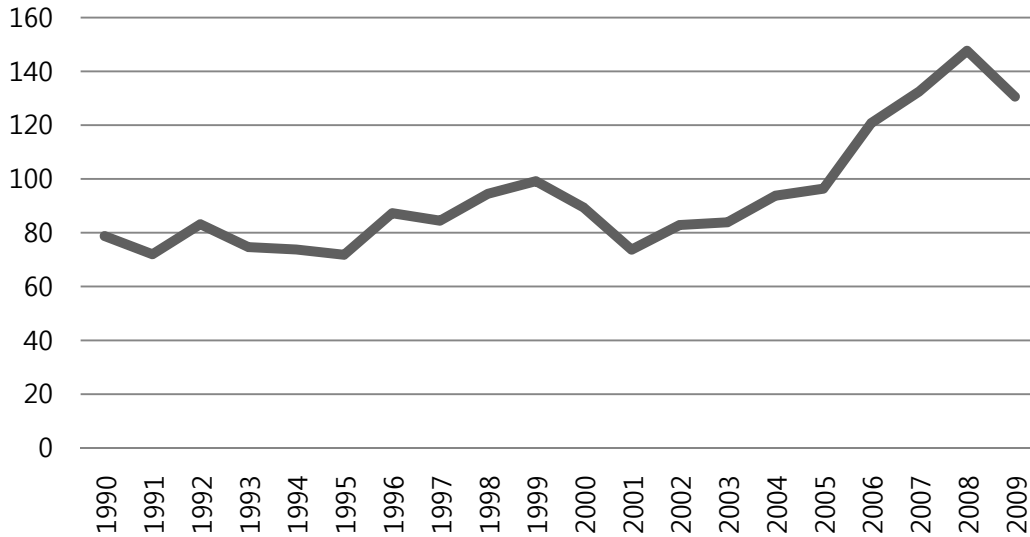
구 소련에서 독립한 CIS 국가들 역시 WTO 가입을 추진했고, 그 중 키르기스스탄이 98년 12월 CIS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WTO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그루지야는 2000년 6월, 몰도바는 2001년 7월, 아르메니아는 2003년 2월에, 우크라이나는 가장 최근인 2008년 5월에 정회원국이 되었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WTO의 읍저버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⁵. 이것을 통해,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이행 중에 있는 국가들에게 세계 무역기구의 가입은 필수적 항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TO 가입을 통해 국가는 교역량 확대를 통한 국가적 이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WTO 역시 자신들의 목적은 무역 장벽을 제거한 국가 간 자유 무역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돕는 것⁶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이 반드시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및 무역량 증가를 이끄는가 하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⁵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⁶ WTO, www.wto.org

[그림 1] 키르기스스탄의 GDP 대비 무역량 변화>



자료: World Bank

본 글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를 통해, WTO 가입이 경제 성장과 무역량 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약소국으로, 인구는 500만이 약간 넘고, 면적은 남한의 두 배 정도⁷이며, 천연자원은 주변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국가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초기조건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은 구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급속한 개방 정책을 취했으며, CIS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WTO 정회원국이 된 국가이다. 적은 인구로 인해 내수가 빈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기 조건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에 비해 무역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국가⁸이며, 독립 후부터 GDP 대비 무역량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WTO 가입을 통한 무역량 변화를 통해 그것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CIS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⁷ 외교통상부, 키르기스스탄 개황(2008), 인구 528만 명, 면적 198,500km²

⁸ World Bank에 따르면, 2009년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GDP 대비 무역량은 130.6%이고, 주변국들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 83.9%, 우즈베키스탄 71.7%, 타지키스탄 69.8%, 투르크메니스탄 121.4%, 러시아 49.9%

II.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WTO가입이 국가의 무역량을 증진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된 논문들 중에서 WTO가 확실하게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국가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가진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이와 관련된 논문들은 WTO 가입이 무역량 증대 및 경제적 이득과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과 일정 정도의 무역량 증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국가들에게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9,10}. 그리고 WTO 가입효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논문들 중에서 특정 국가의 경우, 특별히 체제전환국의 경우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한 국문논문은 대부분 중국의 경우를 다루고 있고, 다른 체제전환국들이 경험한 상황들에 관한 논문은 찾을 수가 없다. 즉, WTO 가입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을 통한 논증은 중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약한 실정인 것이다.

Arvind Subramanian과 Shang-Jin Wei의 2006년 글에 따르면, WTO나 GATT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무역 및 경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가 구성원이 되는가, 어떤 국가와 협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영역, 상품에 대한 협상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결론을 내었다¹¹. 그들은 논문에서 산업화된 국가,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 보다 더 큰 무역의 증진을 이루었으며, 양자무역에서 두 국가 모두가 자유무역 시스템 하에 있는 경우가, 한 국가만 그러한 시스템일 경우보다 무역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컸다고 결론내었다.

Richard Pomfret는 자신의 2007년 논문에서 키르기스스탄이 WTO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시정 친화적 경제 개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양날의 칼처럼,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WTO 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의 무역정책 영역에서 주권이 약화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²

⁹ Arvind Subramanian, and Shang-Jin Wei, "The WTO promotes trade, strongly but unevenly," 2006 Andrew K. Rose, "Do we really know that the WTO increase trad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1(Mar., 2004), pp. 98-114

Simon J. Evenett, "WHAT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WTO ACCESSION ON DEVELOPING COUNTRIES? A BRIEF OVERVIEW OF THE LITERATURE."

¹⁰ Andrew K. Rose, "Do We Really Know that the WTO Increases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2003

¹¹ Arvind Subramanian (2006)

¹² Richard Pomfret, "Lessons from Kyrgyzstan's WTO experience for Kazakh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Review* Vol. 3, No. 2, December 2007

Roman Mogilevsky는 2004년에 키르기스스탄의 WTO 가입과정과 그것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 무역과 경제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한 글을 썼다. 그 글에서는 무역과 투자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별히 WTO 가입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부분이 어떤 양상을 나타내었는지를 통해 WTO 가입이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효과를 주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논증했다¹³. 이 글에서 그는 무역과 투자의 통계를 통해 봤을 때, WTO에 가입한 것이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Mogilevsky의 글은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의 글은 2004년에 출판되었고,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까지의 자료를 담고 있어서, 1998년에 WTO에 가입한 키르기스스탄이 단기적으로는 가입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담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역 및 투자의 진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 글에서는 Mogilevsky가 자신의 논문에서 보였던, 전개의 틀을 기초로 하며, 그가 다루지 못한 2003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까지 키르기스스탄의 무역 및 투자 통계를 통해 장기적인 입장에서 WTO 가입이 키르기스스탄에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켰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WTO가 주장하는 WTO 가입의 10가지 실익들 중, 실증적 분석이 가능한 몇 가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일반적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통해, 체제전환 후 WTO 가입까지를 첫 번째 시기로 하여 WTO의 가입 배경으로 다루고, WTO 가입에서 2005년 레몬혁명 전까지를 두 번째 시기로,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를 세 번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무역 및 투자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 미친 WTO 가입효과를 결론지을 것이다.

자료는 키르기스스탄 통계위원회, 키르기스스탄 국립 중앙은행 및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편차 정도가 크지 않았기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사용했다.

Ⅲ. 키르기스스탄의 WTO 가입 배경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소비에트경제체제가 각 국가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일정정도 사실이지만, 이전의 경제체제는 독립 한 키르기스스탄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¹³ Roman Mogilevsky, "Participation in WTO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Kyrgyzstan's experience," 2004

걸림돌이 되었다. 1992년 당시 키르기스스탄의 대 러시아 수입과 수출은 전체 수입과 수출에서 각각 49%와 39.1%를 차지했고, 이런 대외 무역에 있어서의 의존성은 키르기스스탄 경제가 러시아 경제변동에 대해 취약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소련경제에 속해 있는 동안 농업생산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았고, 이것은 독립 후에 독자적인 산업발전,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것과 더불어, 목축업을 대량으로 수행함에 따른 초지의 고갈현상도 독립한 키르기스스탄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었다¹⁴.

부존자원이 부족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을 시행했는데, 이를 위해 충격요법을 사용했다. 충격요법으로 인한 제도적 개혁은 크게 거시경제 안정화, 가격과 무역의 자유화, 국가자산의 민영화, 그리고 구조적 제도적 개혁으로 이루어지는데,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개혁초기에 발생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무역자유화는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졌고, 초기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자국통화의 도입으로 일정 정도 상쇄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했으며, 가격자유화는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켰다¹⁵.

독립 후,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적 상황은 다른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다. 91년부터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고, 95년에는 GDP가 89년 수준의 절반으로까지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인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ev)는 키르기스스탄 경제를 세계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및 무역기구에 대한 가입을 추진했는데, 92년 9월에 세계은행의 구성원이 되었고, 93년 5월에는 IMF의 안정화 프로그램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제원조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1995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하게되었다.

[표 4] 1989-2000년 사이의 키르기스스탄 GDP 성장률 및 누적비율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성장률(%)	8.0	3.0	-5.0	-19.0	-16.0	-20.1	-5.4	7.1	9.9	2.1
89년=100	100	103	97.9	79.3	66.6	53.2	50.3	53.9	59.2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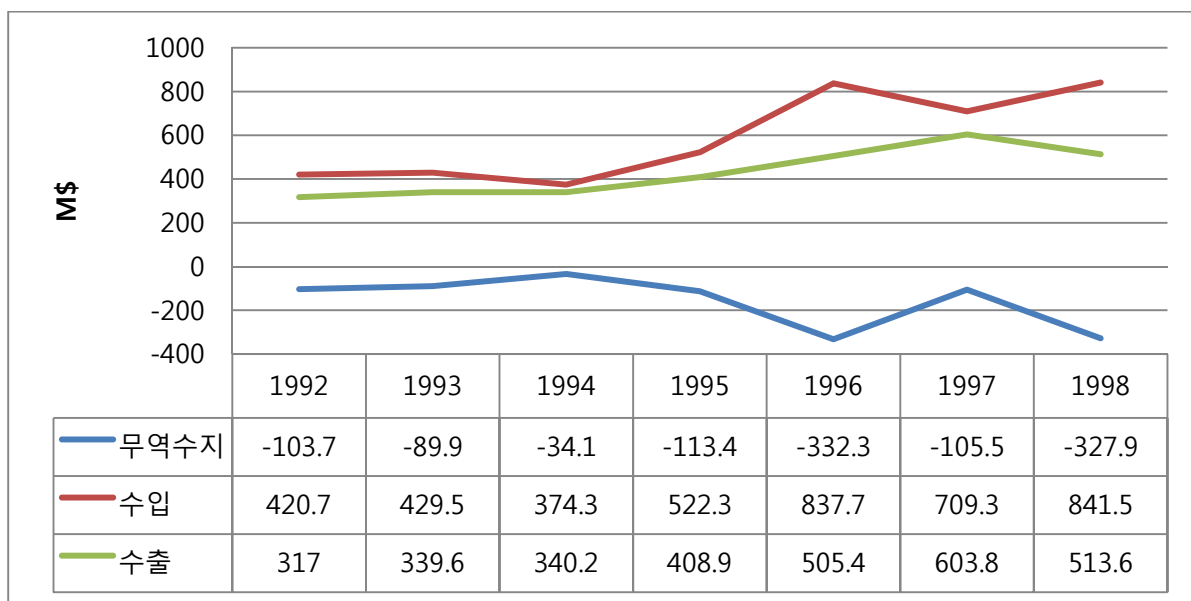
자료: Annual Report 2002 of the 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¹⁴ Ouran Niazliev, "Failed Democratic Experience in Kyrgyzstan: 1990-2000," Chap. 3 of the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of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April 2004), pp. 54-86

¹⁵ Ouran Niazliev(2004)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나타난 키르기스스탄의 대외무역의 변화를 보면, 1998년의 무역량이 1992년의 무역량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은 92년의 3억 1700만 달러였던 것이 98년에는 5억 13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4억 2000만 달러에서 8억 41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92년의 1억 370만 달러의 적자에서 98년에는 3억 2790만 달러의 적자로 적자폭이 증가하였다. 무역액의 증가가 나타난 원인은 무역이 어떤 국가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그림 2] 1992-1998년 기간 동안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입량과 무역수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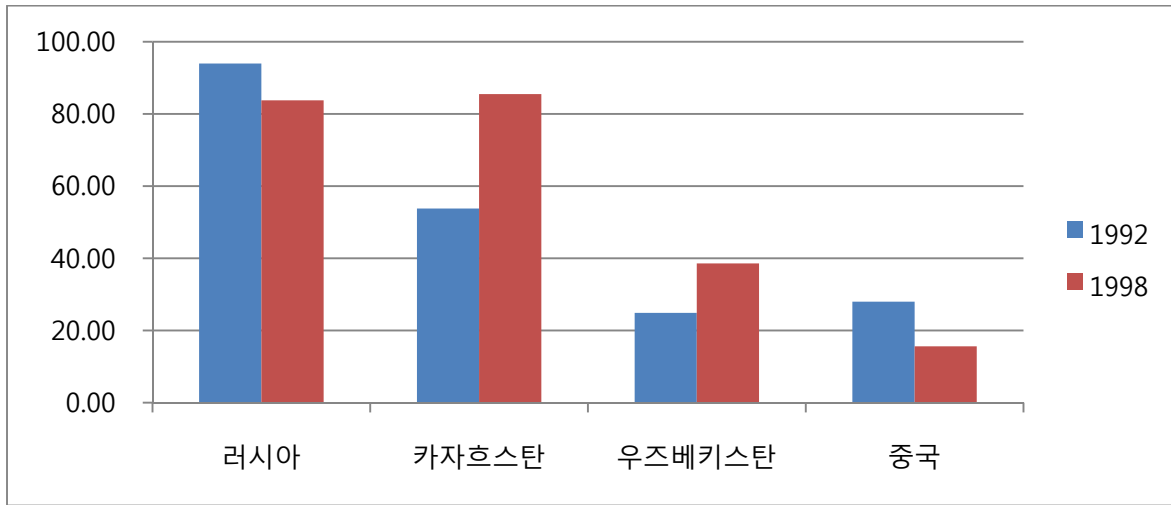


자료:ADB

이 기간 동안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에서 중요한 무역 대상국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다. 1992년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는 29.8%, 카자흐스탄은 17.1%, 우즈베키스탄은 7.9%를 차지했고, 1998년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는 16.5%, 카자흐스탄은 16.8%, 우즈베키스탄은 7.6%를 차지했다. 수출에서 주요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98년에도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여, 수출의 편중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편중은 수입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1992년 전체 수입에서 러시아는 40.9%, 카자흐스탄은 19.5%, 우즈베키스탄은 7.6%를 차지했고, 1998년 전체 수입에서 러시아는 24.3%, 카자흐스탄은 9%, 우즈베키스탄은 14.5%를 차지했다.¹⁶ 즉, 키르기스스탄의 독립 후 대외무역은 구소련 시기에 형성된 공화국들과의 관계에 의존한 양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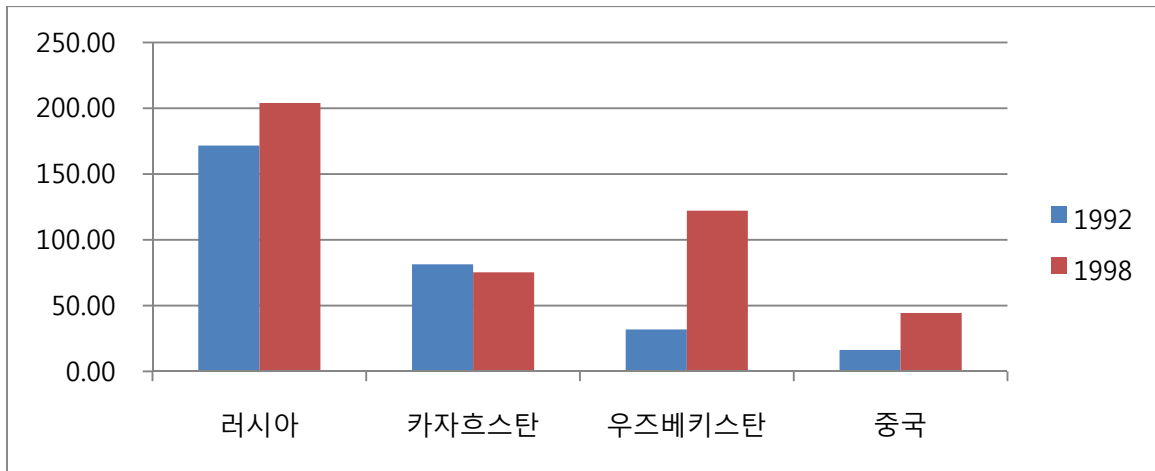
¹⁶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09"

[그림 3] 주요국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수출액 M\$



자료: ADB

[그림 4] 주요국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수입액 M\$



자료: ADB

키르기스스탄이 WTO라는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구 소련 지역, 즉 CIS 권역에 대한 대외경제의존성에서 탈피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는 이미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정치외교적 목적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¹⁷

¹⁷ Richard Promfret (2007) pp.36-37

IV. WTO 가입 후 무역 및 투자변화

키르기스스탄은 CIS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WTO에 가입하였고, 이것을 통해 국제무역질서의 일원의 진정한 일원이되게 된다. 이 장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WTO에 가입한 1998년 이후, 즉 1999년부터의 무역과 투자변화의 분석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WTO 가입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가 가장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05에 발생한 키르기스스탄의 레몬 혁명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누어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무역 및 투자변화

1998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이 CIS 국가들 중 최초로 WTO 정회원국이 됨에 따라, 1999년부터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특히 무역에 있어서 활발한 교역이 발생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WTO 가입 직후인 1999년에 경제 및 대외무역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키르기스스탄 경제가 갖는 CIS 국가들과의 큰 연관성, 즉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의 구 소련 국가들의 경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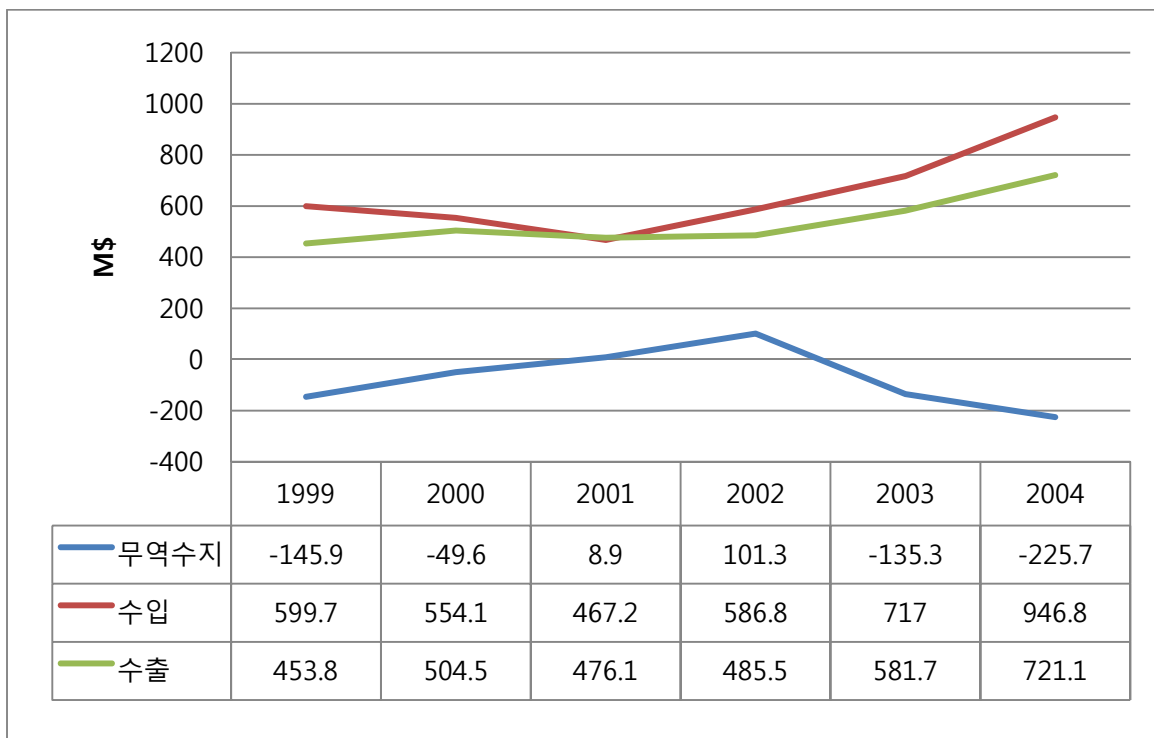
[표 5] 1999-2008까지의 GDP 성장률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3.7	5.4	5.3	0	7	7	-0.2	3.1	8.5	7.6
1차산업	8.2	2.6	7.3	3.1	3.2	4.1	-4.2	1.7	1.6	0.7
2차산업	-3.8	8.8	4.5	-9	12.7	3	-9.8	-6.9	10.3	10.7
3차산업	3.3	5.8	3.8	4.2	7.4	11.7	8.4	9.4	12.4	11.4

자료: ADB

그러나 러시아 금융위기가 정리되고, 국제유가가 상승한 시기인 1999년 이후에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성장은 2002년을 제외하고는 2004년까지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다. 1차 산업의 경우에는 레몬혁명이 발생한 2005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2차 산업은 네 차례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여,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차 산업은 꾸준한 플러스성장을 하였다. 대외무역량의 경우, 2001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다음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5] 1999-2004년 기간 동안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입량과 무역수지 변화



자료: ADB

키르기스스탄이 WTO 정식회원국이 된 이후,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99년의 수입과 수출은 98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수출은 98년 5억 1300만 달러에서 99년 4억 5380만 달러로, 수입은 98년 8억 4150만 달러에서 99년 5억 9970만 달러로 감소했다. 수입과 수출에서의 감소는 주변국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98년 러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러시아가 플러스 성장을 함에 따라, 2000년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수입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는 것과 중국에서의 수입량이 전체에서 10%를 넘었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진 반면에 수입에 있어서는 50%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요인은 키르기스스탄의 쿰토르(Kumtor) 금광 개발이 시작되어 스위스 및 서방세계에 대한 금 수출량이 늘어났기 때문¹⁸이다.

[표 6] 키르기스스탄 무역에서 주요 3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러시아	수출	26.6	16.4	16.3	15.6	12.9	13.5	16.5
	수입	20.8	26.9	24.3	18.2	23.9	18.2	19.9
카자흐스탄	수출	22.3	14.4	16.6	9.9	6.6	8.2	7.6
	수입	16.7	9.8	8.9	12.1	10.4	17.5	21.1
우즈베키스탄	수출	22.9	16.8	7.5	10.3	17.7	10.1	5.7
	수입	15.7	18.1	14.5	8.3	13.5	14.3	10.2
중국	수출	7.2	5.2	3.1	5.6	8.7	4.1	8.5
	수입	0.9	4.6	5.3	6.2	6.7	10.4	10.1
3국 합계	수출	71.8	57.6	40.4	35.8	37.2	31.8	29.8
	수입	53.2	54.8	47.7	38.6	47.8	50	51.2

자료: 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Mogilevsky가 작성한 것을 필자가 계산

1999년에서 2004년 기간에 키르기스스탄의 WTO 가입국들과의 무역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996년에서 1998년까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WTO 가입국들과의 무역은 36%를 차지했으나, 1999년에서 2002년까지의 그것은 54%로 증가했다. 수출에서도 가입 전 34%의 비중이었던 것이 가입 후에는 55%로 증가했다¹⁹. 이러한 것은 크게 2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동 기간에 WTO회원국이 늘어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상품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표 2에서 나타난 것 처럼, 1998년 키르기스스탄의 WTO 가입 이후로, 그루지아와 몰도바를

¹⁸ ADB 자료에 따르면, 98년에 광물생산은 56억숨(Som)이었지만, 99년에는 106억숨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08년에는 208억숨까지 증가되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스위스는 키르기스스탄의 제1의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37.8%를 차지하고 있다.

¹⁹ Roman Mogilevsky, (2004)

비롯하여,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WTO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구 소련국가들과의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대외무역에서 WTO 회원국들과의 교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늘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2001년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그 정도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대 키르기스스탄 교역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키르기스스탄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앙아시아 전체지역에 해당이 된다. 2000년에 10억 달러였던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교역액은 2003년에는 30억 달러, 2004년에는 6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²⁰. 즉, 중국과의 교역량 확대가 키르기스스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결국 WTO 가입 효과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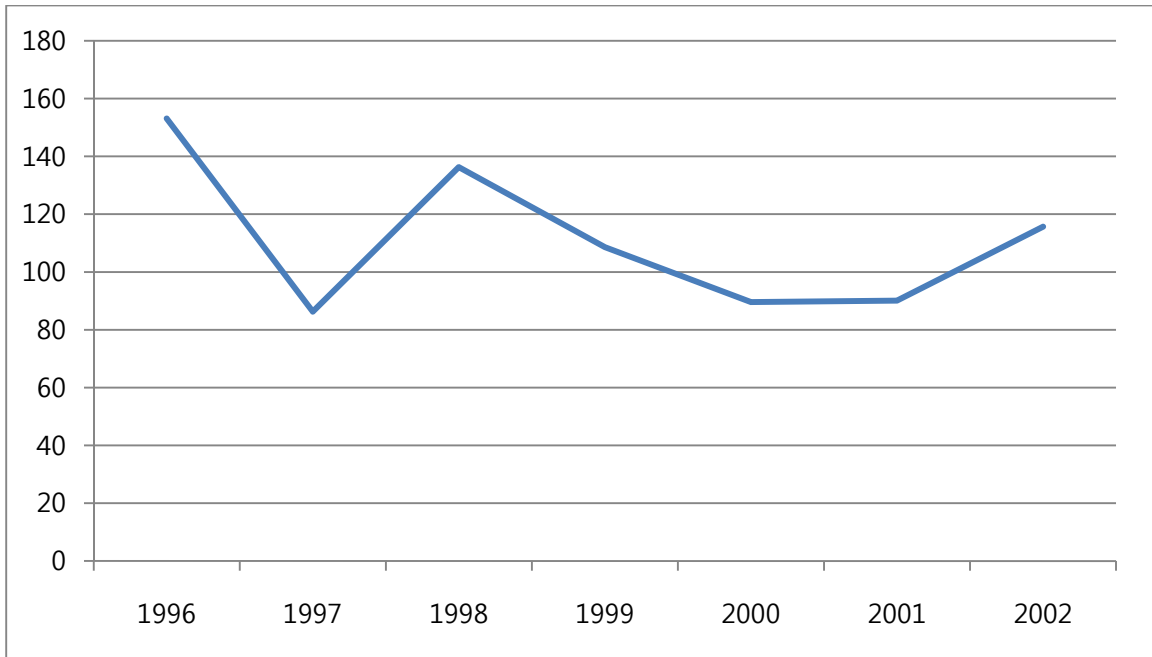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무역에서 키르기스스탄이 WTO 회원국들과의 교역 물품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WTO 회원국들에 대한 1996년 수출에서 금은 전혀 없었으나, 1998년에는 78%를 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했고, 2001년에는 80%에 이르게 되었다²¹. 즉, 금이라고 하는 특수한 수출 품목이 WTO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WTO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증가한 금 수출은 키르기스스탄의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국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보다는 국가의 수익으로만 남게되기 때문에, 일반 상품 거래의 증가로 인한 효과보다는 그 정도가 적다고 판단되어진다.

키르기스스탄은 WTO 가입을 통해 무역량의 증대뿐만 아니라, FDI의 활성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WTO가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낙후된 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될 것을 전망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이 중국의 CIS 지역을 향한 유일한 창이 되는 듯 했고, 이러한 전망은 더욱 가시화되는 듯 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의 증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2000-2001년의 FDI는 9천만 달러로, 1998년의 1억 3600만 달러의 삼분의 이 수준으로 감소했다. 투자가 유입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FDI가 유입된 산업부문은 공업부문이 제일 컸지만, 이것 역시 96년에 1억 2090만 달러였던 것이 2002년에는 6020만 달러로 삼분의 일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²⁰ Gaël Raballand & Agnès Andrésey, "Why should trade between Central Asia and China continue to expand?," 2007

²¹ Roman Mogilevsky, "Role of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Disciplines: Kyrgyzstan's Experience," *Studies & Analyses*, 2004

[그림 6] 1996-2002기간 키르기스스탄 FDI 유입량(M\$)



자료: 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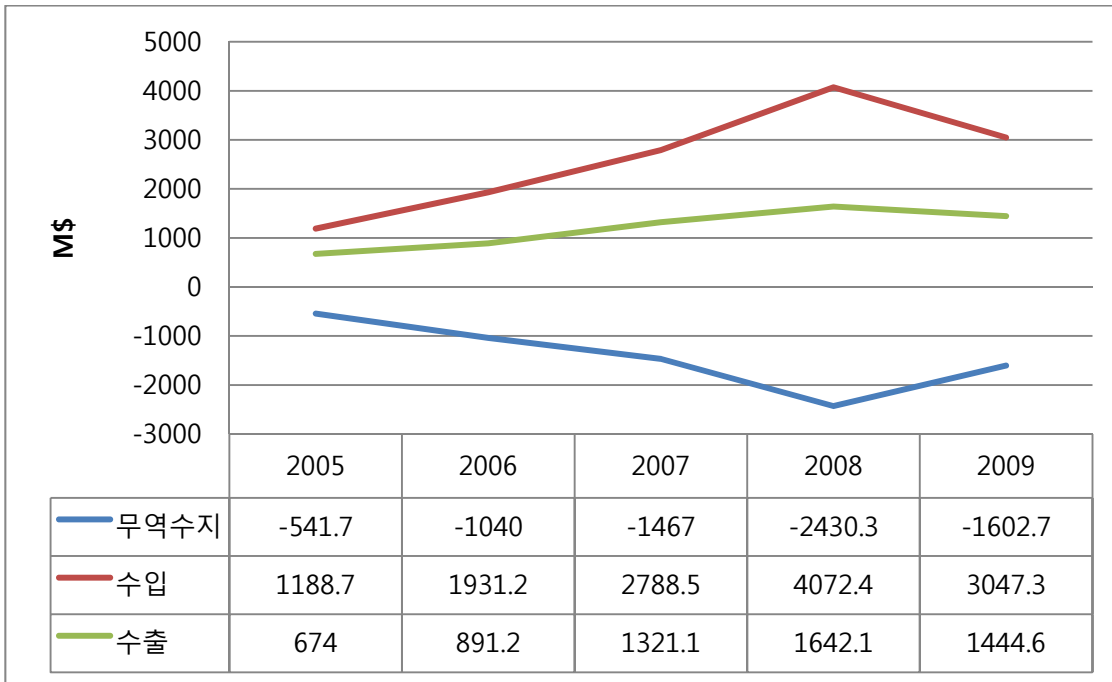
2.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무역 및 투자변화

2005년에 키르기스스탄은 시민혁명²²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200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7%였던 것이 200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무역증가량 역시 2004년에 수출과 수입증가량이 각각 24%와 32.1%였던 것이, 2005년의 수출과 수입증가량은 -6.5%와 25.5%로 전년과 대비했을 때, 수입과 수출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시민혁명의 혼란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따라, 경제성장률이 2006년 3.1%, 2007년 8.5%, 2008년 7.6%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출입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²³

²² 튜립 혁명(Tulip Revolution)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민혁명은 [2005년 2월 27일](#)과 [3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행해진 [키르기스스탄](#)의 의회 선거 이후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키르기스스탄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고,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15년간 장기 집권했던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피했고, [니콜라이 타나예프](#) 총리 역시 사임했다. 이후 선거를 거쳐 [쿠르만베크 바키예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레몬 혁명으로도 불린다 출처: 위키디피아

²³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09

[그림 7] 2005-2009년 기간 동안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입량과 무역수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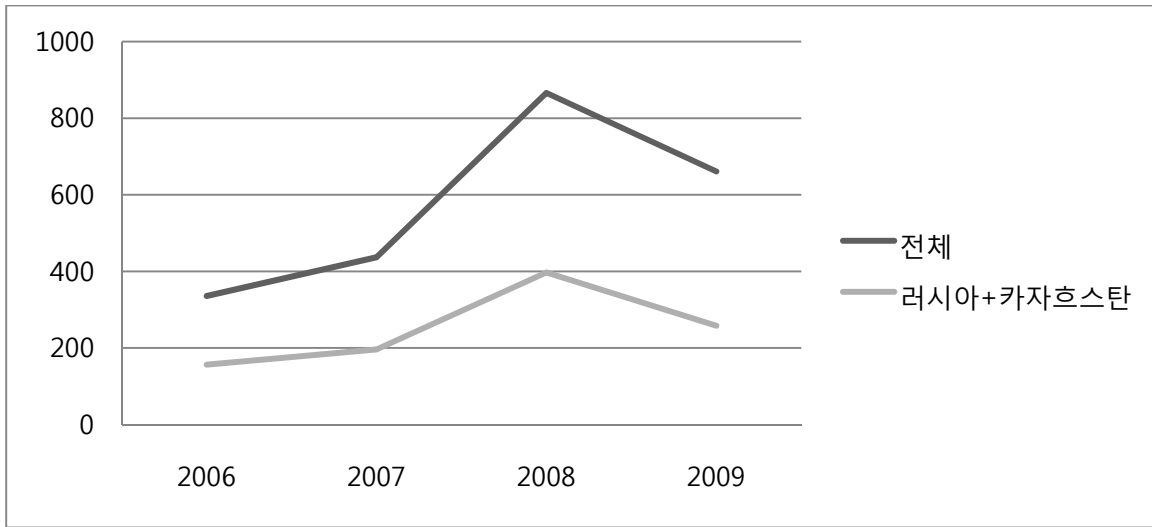
자료: ADB, *2009년 자료는 키르기스스탄 관세청

2000년과 2008년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러시아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의 모든 투자는 0에서 3천 98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로의 투자는 10만 달러에서 6천 64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중에서 2천 730만 달러가 포트폴리오와 직접투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트폴리오와 직접투자가 거의 전무한 러시아의 대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⁴.

키르기스스탄 국가 통계청 자료에 따른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FDI 유입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의 FDI 유입은 2008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증가했다. 이 때의 FDI는 주로 카자흐스탄에서 유입되었다. 2006년에는 전체 FDI 3억 3560만 달러 중에서 1억 3600만 달러가 카자흐스탄에서 유입되었고, 2009년에는 전체 6억 6090만 달러 중에서 2억 1300만 달러가 카자흐스탄 자본이었다.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전체 키르기스스탄으로 유입된 FDI 중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온 것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45% 전후를 차지하였다. 즉, 이 기간 동안에도 키르기스스탄의 FDI에서 비 WTO 가입국의 비중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²⁴ Boris Heifetz, "Russian Direct Investments in EurAsEC and Their Role in Energy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Eurasia," *EDB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2009*

[그림 8] 2006-2009년 키르기스스탄으로의 FDI 유입 양(M\$)



자료: 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청

[표 7] 2006-2009 기간 FDI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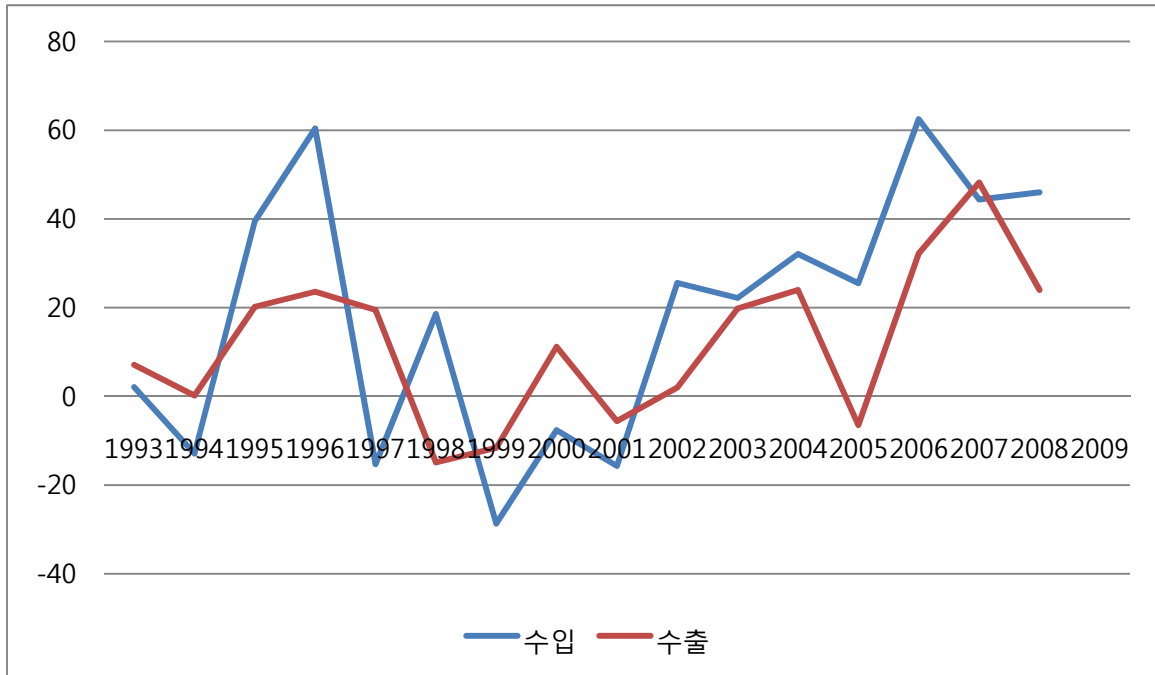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전체		335.6	436.8	866.2	660.9
CIS권	러시아	19.8	13.4	36.2	44.9
	카자흐스탄	136.8	182.7	361	213
합계(%)		156.6(46.7%)	196.1(44.9%)	397.2(45.9%)	257.9(39%)
비CIS권	영국	38	60.1	73.9	110.6
	캐나다	8.8	6.3	95.9	80.9
	중국	7.3	29.1	57.5	51.5
	터키	12.8	16.6	12.8	37.8
	호주	3.5	5.5	18.1	23.5
	미국	6.4	13	6.3	23.1

자료: 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청

비 CIS권 국가들 중에서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 상위 6개국은 영국, 캐나다, 중국, 터키, 호주, 미국 순이다. 이들 국가들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부분의 국가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액이 약간

감소한 것에 그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은 98년 당시 러시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나타난 키르기스스탄으로의 FDI 감소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림 9] 1993-2009 기간 키르기스스탄 무역 증가률(%)



자료: ADB

3. 원인분석

키르기스스탄이 WTO 가입을 통해 얻은 효과가 적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WTO회원국들과의 교역이 증가한 시기가 있었으나, 그것은 금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수출증가로 인한 것이었고, FDI에 있어서도 서방세계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투자를 유치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2000년 대 이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대한 잠식은 강화되었고, 투자에 있어서도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두 국가의 지배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가 안정적이었던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대외교역량은 확실히 증가했지만, 이 기간 동안 키르기스스탄의 무역은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보다는 역내 국가들, 즉 CIS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²⁵)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교역에서

²⁵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AEC or EurAsEC): 1996년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주도로 형성된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ustoms union](#) 을 근간으로하여, 2000년에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사이에서의 교역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러시아와의 교역에서는 2005년 5억 4400만 달러였던 것이, 2008년에는 18억 달러로 세배 이상 증가했고, 벨라루스와의 교역에서는 천 80만 달러였던 것이, 4천 78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카자흐스탄과의 교역은 약 두 배, 타지키스탄과의 교역은 약 두 배 증가했다.

이렇듯, 키르기스스탄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와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WTO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적었다는 것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구 소련시기에 이루어졌던, 공화국들간의 경제분업화로 인한 영향이 제일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 기반이 부재한 것과 제반 인프라의 발전이 주변국가들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것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산업구조적으로 금이라는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금이라는 품목이 특수 광물이기 때문에, 원유수출국들이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자국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도 국제 금값에 민감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경제성장의 효과를 절감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의 다양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인프라의 낙후²⁶가 있다.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부분에서 2009년에 20.8%였는데, 이것은 현재 중국과의 육로 수송로의 낙후정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중국과의 철도 연결 프로젝트가 진행중인데, 이것은 우즈베키스탄까지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키르기스스탄과 신장 자치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12개의 건설을 진행중이다²⁷. 이것을 통해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의 자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패권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대통령들의 서명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우즈베키스탄까지 회원국이며,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가 옵저버 국가로 있다.

²⁶ Roman Mogilevsky, "Participation in WTO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Kyrgyzstan's experience," 2004

²⁷ F. William Engdahl, "Kyrgyzstan's 'Roza Revolution' - Cui Bono? (Part 2) China and the Kyrgyz geopolitical future,"

[표 8] EurAsEC 회원국 간 무역량 변화>

Trade turnover between countries	2005	2006	2007	2008
Russia-Belarus	15834.0	19944.0	26074.0	34188.9
Russia-Kazakhstan	9749.0	12807.0	16576.0	19731.7
Russia-Kyrgyzstan	544.0	755.0	1 169.0	1 802.9
Russia-Tajikistan	335.0	504.0	772.0	1002.8
Kazakhstan-Belarus	234.5	355.3	525.3	567.0
Kazakhstan-Kyrgyzstan	344.1	406.7	517.0	608.4
Kazakhstan-Tajikistan	167.6	185.1	198.9	295.4
Belarus-Kyrgyzstan	10.8	21.5	25.8	47.8
Belarus-Tajikistan	12.0	18.0	34.0	75.1
Kyrgyzstan-Tajikistan	24.9	26.7	30.4	43.2
Total trade:	27255.8	35023.3	45922	58362.5

Evgeny Vinokurov(2009)

V. 결론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탈러시아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 또한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인해 WTO 가입을 추진했고, CIS 국가들 중 최초로 정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WTO 가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이 얻은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제도를 구축했다는 것 외에, 경제적으로 얻을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WTO 가입후, 회원국들과의 무역이 증대되기는 했으나, 주된 요인이 금이라는 특정 상품으로 인한 것이었고, 가입 후 발생한 서구 국가들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다. 최근에 WTO 가입국들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그것은 아직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두 국가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와 비슷한 정도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개방형 경제를 취함에 따라,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을 키르기스스탄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키르기스스탄의 총 무역량 증가율의 그래프가 95년과 96년이라는 시기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J-Curve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키르기스스탄의 무역량의 변화 추세가 체제전환국들의 GDP 변화의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체제의 안정성이 자리잡아 갈수록 국가의 경제성장 역시 상승하는 것 처럼, 무역의 증가 역시,

체제의 안정화와 시스템의 정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증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특정 상품에 집중된 수출과, 특정 국가들에 의해 국가교역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의 한계성을 벗어난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이루어진 관세동맹²⁸(Custom Union)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인 요인과 동시에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은 일결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체제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권위주의적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의 존재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 가입을 추진하는 것에는 딜레마적 요소가 있다. 그것은 WTO 체제와의 충돌인데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에 WTO 가입을 통해서 개방무역정책을 받아들였고, 평균 수입관세를 5.1%로 책정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관세동맹 체제 하에서는 이 보다 높은 10.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들과 맺은 관세를 2배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⁹. 이것은 경제관계의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사태로 물러난 쿠르만벡 바키예프 이후, 정권을 잡은 로자 오투바예바 세력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보다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지난 10월 총선에서 의회진출에 성공한 정당들의 수반들이 선거 후, 바로 크레믈린을 방문한 사실은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해 주었다. 키르기스스탄 경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높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관세동맹으로의 진입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WTO 가입의 경험을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축적된 경험이 차후에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가 분명 존재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은 무엇보다 수출에 있어서 금의 의존성을 속히 탈피하여, 금광이 고갈되었을 때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전체 수출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47.16%를 차지하던 것이 2007년에는 19.82%로 과거보다 낮아졌다³⁰. 최근에는 희토류 등의 희소금속에 대한 광산 탐사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²⁸ 1995년 러시아와 벨라루스 양국간 관세동맹 협정 체결에서 시작되었으며, 2010년 7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간에 관세행정 및 통관업무에 대한 “관세기본법”을 공동으로 발효했다. 이것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공통 수입관세율을 책정한다. 이로 인해 1850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9500개 상당의 상품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적용하고 있는 10-11%의 관세를 적용한다

²⁹ <http://www.eurasianet.org/node/61148> (검색일 2010.12.20)

³⁰ Martin Myant and Jan Drahekoupil (2008)

역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서구 기업들에게 중요한 국가 자산을 넘겨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된다.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 및 통신의 인프라 개발이 가장 절실하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교통운송 인프라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과의 교역은 지금보다 훨씬 증대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 중국의 상품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끔 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키르기스스탄 정부기관 사이트

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키르기스스탄 국립중앙은행

키르기스스탄 관세청

국제기구 사이트

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http://www.worldbank.org>

국제통화기금(IMF) <http://www.imf.org>

아시아개발은행(ADB) <http://www.adb.org>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외교통상부 국가개황(2009)

일반 논문 및 보고서

Andrew K. Rose, "Do We Really Know that the WTO Increases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2003

Arvind Subramanian and Shang-Jin Wei, "The WTO Promotes Trade, Strongly but Unevenly," 2006

Boris Heifetz, "Russian Direct Investments in EurAsEC and Their Role in Energy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Eurasia," *EDB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2009*

David G. Tarr, "Political Economy of Russian Trade Policy: Early Transition, Customs Unions,

- WTO Accession and Protection for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in the BRICS*, 2009
- Elvira Kurmanalieva, “Empirical Analysis of Kyrgyz Trade Patterns,” *Eurasian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2008, 1 (1), 83–97.
- Evgeny Vinokurov,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2009,” An annual publication of the Eurasian Development Bank, 2009
- F. William Engdahl, “**Kyrgyzstan’s ‘Roza Revolution’ – Cui Bono? (Part 2) China and the Kyrgyz geopolitical future,**”
- Gaël Raballand & Agnès Andrésy, “Why should trade between Central Asia and China continue to expand?,” 2007
- Martin Myant and Jan Drahokoupil,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the Structure of Exports in Central Asian Republics,”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2008, 49, No. 5, pp. 604–622.
- Ouran Niazliev, “Failed Democratic Experience in Kyrgyzstan: 1990–2000,”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of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April 2004), p. 56
- Richard Pomfret, “Lessons from Kyrgyzstan’s WTO experience for Kazakh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Review* Vol. 3, No. 2, December 2007
- Roman Mogilevsky, “Participation in WTO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Kyrgyzstan’s experience,” 2004
- Roman Mogilevsky, “Role of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Disciplines: Kyrgyzstan’s Experience,” *Studies & Analyses*, 2004
- Simon J. Evenett, “WHAT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WTO ACCESSION ON DEVELOPING COUNTRIES? A BRIEF OVERVIEW OF THE LITERATURE.”
- Spector, Regine A. “The Transformation of Askar Akaev, President of Kyrgyzstan,” *Berkeley Program in Soviet and Post-Soviet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2004
- Vinokurov Evgeny, “EDB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2009,”
- Zhanar Sagimbaeva, “Inter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in Northern and Central Eurasia: Overview of Activities in 2008,” *EDB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2009*, 2009

연구기관 사이트

<http://www.eurasianet.org/node/61148> (검색일 2010.12.20)

<http://www.voltairenet.org/article165551.html#nh11>(검색일 2011.01.11)

